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八)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七, 丁茶山과 契의 研究

朝鮮經濟史의 著者 猪谷善一氏는 同著 P. 27에

「우에서의 溫□의 施設을 一切 缺除한 洞里人은 그 自選에 依한 公吏의 指揮 下에 準備, 行政, 敎育, 土木, 及 經濟의 諸般에 且하여 自治로써 經營하였다. 그리하여 그 經營의 基本이 된 것은 契다. 契의 方法에 依하여 洞里의 百姓들은 宗教, 政治, 樂□의 生活을 보냈다. 契을 無視하고는 朝鮮人 生活을 理解할 수 없다. 特히 顯著한 行政的 經濟的 目的은 契에 依하여 有力하게 達成되였다.....」라고 하고, 七章의 契研究로써 朝鮮經濟史라는 題目을 부쳐서 單行本으로 刊行된지도 오랜 일이지만, 果然 朝鮮 特히 李朝의 經濟組織을 말하려 함에 잇서서는 契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기보담 契가 政治經濟의 中心이 된 것은 事實이다.

이것을 看破한 丁茶山은 우선 「契」의 字義辨證에서 出發하여 間間히 契의 種類와 性質을 說明하고 또는 契의 弊害를 陳述한 후 그 弊害에 對한 對策을 講究할 것을 말하였다.

茶山은 契의 字義를 풀으되 「禊者는 潔也라. 鄭俗이 於上巳에 采蘭芷하여 祓除不祥을 謂之禊라.....今俗이 釀錢殖利를 名之曰 契라 하니 契本無字라. 唯蘭亭帖坊本禊訛作契하니 因以襲之也라. 晉俗이 好禊하여 王謝諸人이 共修禊事라. 東人이 凡與衆會飲을 皆謂之禊라 하니 同庚曰甲禊, 同年曰榜禊, 同官曰僚禊, 玉堂修禊屏, 槐院裝禊帖. 此風이 相傳하여 鄉村釀錢者, 亦皆名禊耳라. 此等之禊, 當名曰契니 契者約也요 合也라. 顧名思義, 豈不允矣리요(『雅言覺非』卷三).

茶山の 論法대로 하면 朝鮮의 契의 發生은 못사람과 會飲하는 것을 禊라고 하여 社會的 宗教的 意義가 있는 것이었지만, 鄉村에서 殖利하는 經濟的 意味에까지 禊라는 文字를 쓰게 되었지만, 前者는 禊, 後者는 契로 區分하여

쓸 것이라 하였다. 「禊, 契」의 區別한 必要與否는 물으겠으나, 「三月禊浴」(『三國遺事』, 駕洛國記) 「國俗, 結契燒香, 名曰香徒」(『大東韻玉』 卷十六, 酷吏傳) 「契…항두계字로 읽는 點」으로 보아 「禊契」라 하는 漢字와 그 音 「계」와 關係는 아직 두고라도 兩字의 사이에는 아직 區別할 必要는 업슬 것 가트며 茶山의 글 속에 契의 發達에 對한 暗示를 보여준 것 같다.

朝鮮의 契는 黑正嚴氏가 그 著 「經濟史論考」에 指摘한 것처럼(P. 32-34) 京城에는 最大의 購買力을 가진 政府相對의 六矣廬이 있는 것과 가티 地方에는 普通 「길드」와 類似한 契라는 것이 생겼다. 契의 語學的 解釋을 缺如한 同氏들은 契의 發生과 길드의 發生과의 差異는 前者가 宗教的 社交的인 아 닌에 있다 하였지만 여기는 氏들의 誤議가 있스리라 한다. 朝鮮과 가티 民間 購買力이 薄弱한 곳에 發達되는 「길드」形式의 契로서 가장 經濟的 機能 發揮할 수 있는 것은 오즉 政府를 相對로 하는 貢物契로서 이 貢契의 主人을 坊主人 或은 京主人이라고 한다.

京主人의 職責은 서울서 上司의 推索에 應하고 或은 稅納期를 잘못하면 □ 促할 뿐이요, 邑에 잇서 吏□의 □依를 바더 或 □□을 繼하지 못하면 이를 빌려줄 뿐인데, □□이 漸漸 께져서 한번 監司가 되면 一道의 那人이 認하야 私奴를 삼고 門下를 □하야 □日이 업다 하였다. 營에서 貢物의 受納만을 司 掌하는 營主人의 職은 二百兩씩 맞든 役價를 八千兩이나 바더서 監司의 供 億에 提供하되, 守令들도 그를 잘못 건드리면 免職되기 때문에 내버려두어 生民의 害毒이 가장 큰 것이라 하였다(『經世遺表』 第六編, 卷十八, 田制七 參照).